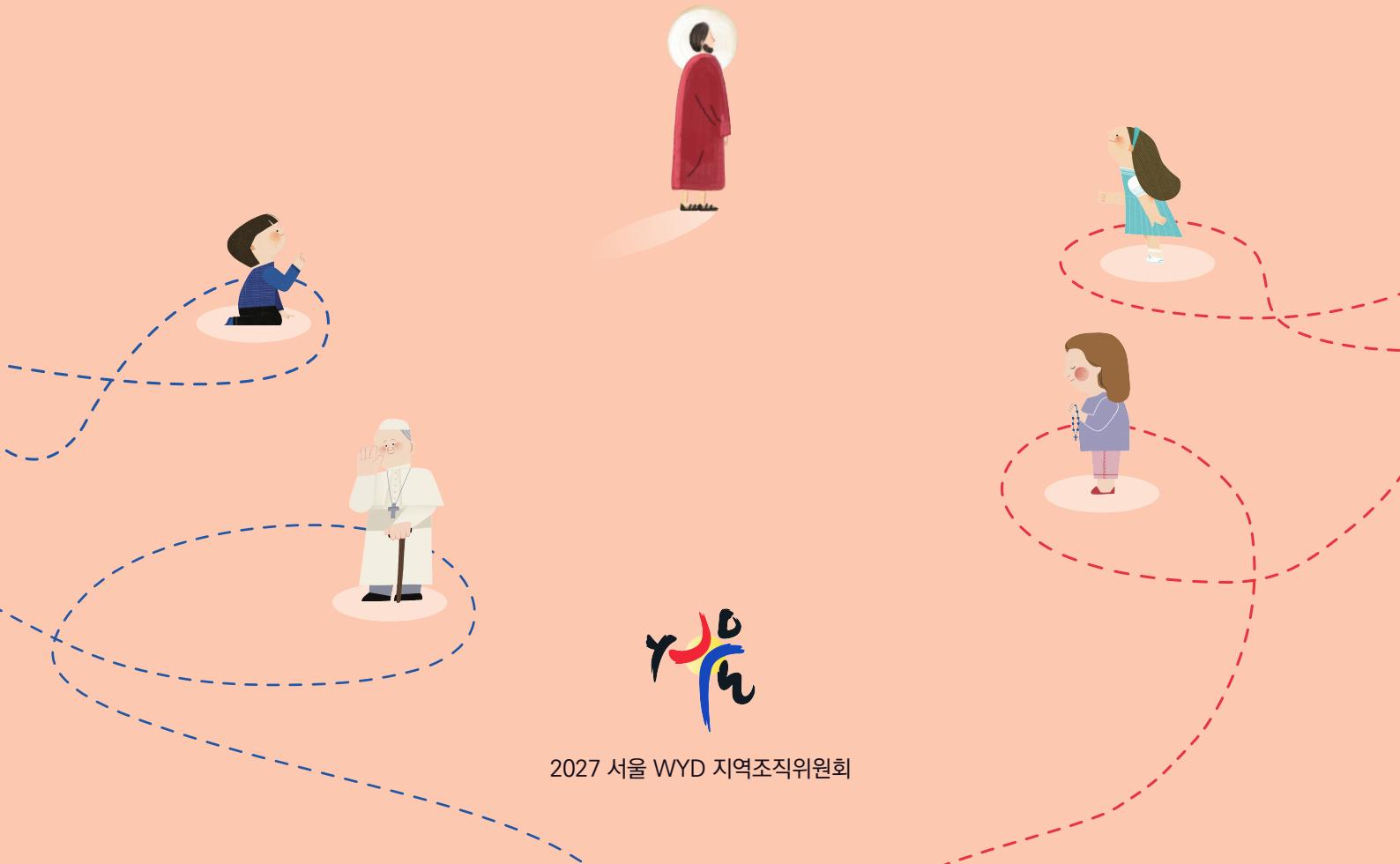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 부르심과 식별

‘성소’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생명으로 부르심, 주님과 나누는 우정으로 부르심,  
성덕으로 부르심 등을 다 아우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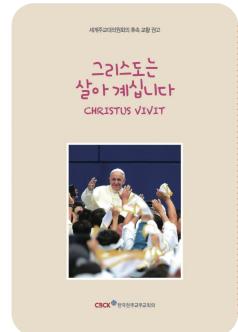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48항, 프란치스코 교황





##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9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성소에 응답하려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면을 증진하고 싹틔우고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우리 자신을 무에서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꽂피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57항, 프란치스코 교황





## 생각해 보아요



## 성령 안에서의 대화

###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sup>16쪽</sup>를 함께 바칩니다.

###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 함께 해 보아요

종이 위에 커다란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완성되면 사진으로 찍고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하려 나갑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을 줍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슈바르츠발트 지역 전통의 '팔 없는 십자가'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